##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여러분 방학 알차게 보내고 있나요? 혹 오지랖 넓은 사람은 아니지요? 부족한 실력이 농익도록 열심히 해야겠지요. 방학을 이용해 실력의 칼을 벼리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오지랖** :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서희는 오지랖을 걷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박경리, 토지>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 고 할 경우에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이 되지요. (넌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거냐?)(심훈<영원의 미소>)

**농익다** : 과실 따위가 흐무러지도록 푹 익다. (목구멍에서 훅훅 치미는 단내에 섞여 농익은 술기운이 고개 턱을 몇 번씩이나 넘는 중이었다.)(윤흥길<완장>)

**벼리다** :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대장장이는 이글이글 타는 참나무 숯불에 쇠를 달구고 힘찬 망치질로 날을 벼리었다.)(오정희<유년의 뜰>)

**꾸러기**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버릇 많거나 그 일을 잘 버르집어 일으키는 사람' 임을 나타내죠. 장난꾸러기 · 잠꾸러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버르집다' 란 말은 숨은 일을 들추어 내거나 작은 일을 크게 떠벌리는 것을 뜻해요. 오므라진 것을 벌려서 편다는 뜻도 있답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 나를 찾으려는 한 개인의 실존적 체험 극화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신경숙 作 '외딴방'**

**자전적 소설로 1인칭 주인공 시점 결말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충분**

1970년대 서울 가리봉동 일대의 공단과 산업체 학교, 199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쓴 장편소설 '외딴방' 은 작가의 체험이 담긴 일종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 형태로 형식은 액자 소설이죠. 한 시골 소녀가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공부한 경험을 제재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내려가지요. 소설은 회상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으로 글쓰기에 대한 의미 탐구 혹은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한 내면적 성숙을 다루고 있지요.

나는 첫 장편 소설을 출간한 후 영등포여고의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하계숙의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나에게 왜 그 시절의 이야기는 쓰지 않는지 묻고 "너는 어쩐지 우리와 다르다"는 말을 한다.

며칠 뒤 나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제주도로 떠나 16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열여섯의 나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 시골에서 상경해 큰오빠와 구로공단의 작은 단칸방에 살게 된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외사촌과 작가가 되고 싶은 나는 나란히 공장에 들어가고, 산업체 특별 학급에 입학하여 주경야독의 생활을 한다. 단칸방은 매우 좁아 대학생이 된 셋째 오빠까지 합류하게 되어 나는 가끔 옆방 희재 언니 신세를 진다. 한편,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노조원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나와 외사촌은 우리를 도와준 노조 언니들을 배신하고 결국 노조에서 탈퇴하고 만다.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린 내가 쓴 반성문을 읽으신 선생님께서 소설을 써 보라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주셨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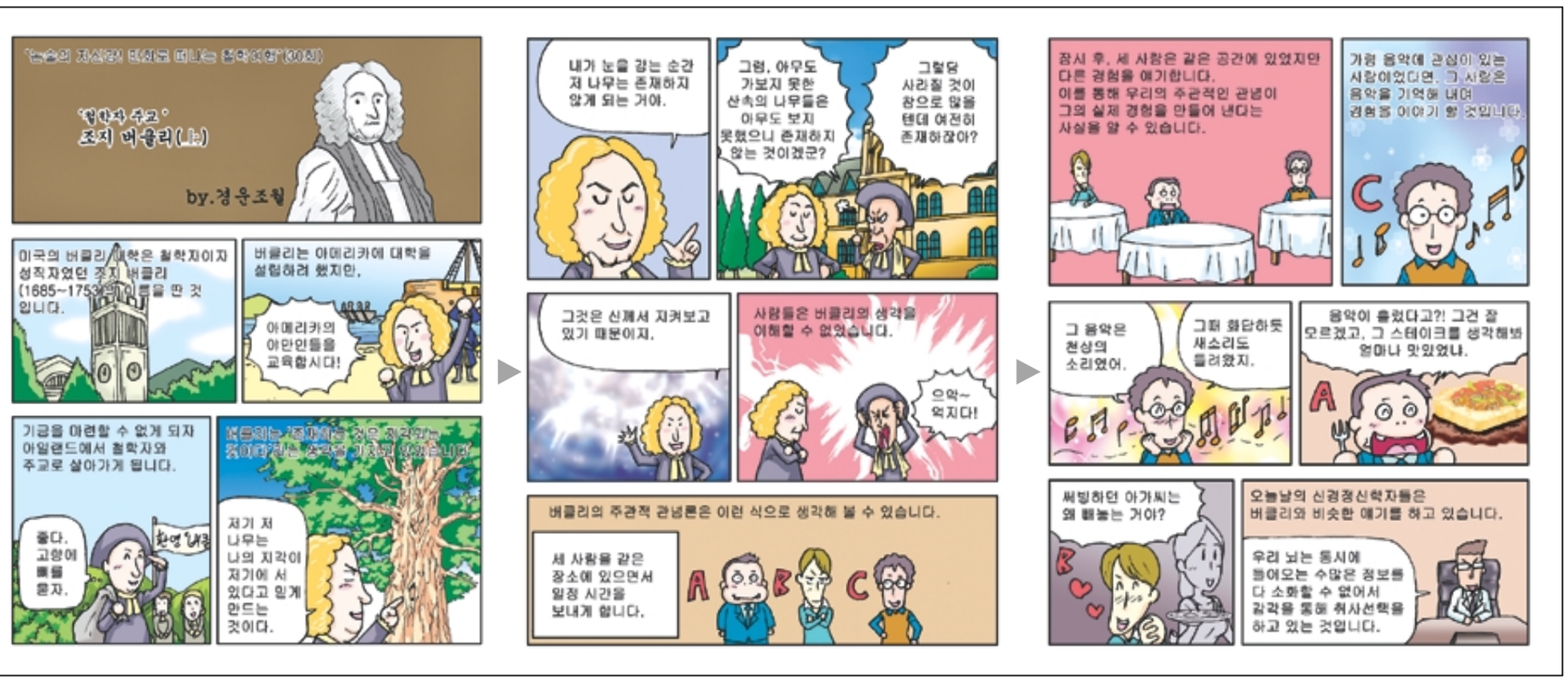
내가 18살이 된 어느 날, 희재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의상실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의상실에서 근무하던 남자와 동거를 한다. 큰오빠는 그런 희재 언니를 못마땅해 하고 내가 그 방에 놀러가는 것을 싫어한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그 해, 큰오빠와 셋째 오빠는 크게 싸웠고, 나의 남자친구 창은 광주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다. 노조는 해체되고 월급은 자꾸 체불되던 그 때, 외사촌은 공장을 그만두고 동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외사촌은 시골에서 올라온 여동생을 데리고 따로 방을 얻어 나가고, 큰오빠는 충무로 발령이 나서, 나는 외딴 방에 홀로 남게 된다.

나는 큰오빠의 배려로 공장을 그만두고 대학갈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진 희재 언니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만다. 자신의 방 안에서 자살한 희재 언니의 시신을 목격한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방을 뛰쳐나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후 큰오빠가 취직을 하여 우리는 방 두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서울예전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 글쓰기에 대한 꿈을 이어간다. 세월이 흘러 큰오빠는 결혼을 했고 다시 그 외딴 방에 갈 일은 없었다. 작가가 되어 첫 장편 소설을 펴낸 나는 지금 희재 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다시 고민한다.

소설 안에 1970년대라는 시대적 풍경이나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이 얼핏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성보다는 개인의 내적 체험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요. '내성의 문학' 이 갖는 특징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지요.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삶과 뒤섞여 글 쓰는 현재의 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교차와 긴장 속에서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은 아픔의 크기만큼이나 그 성찰의 깊이가 커지고 있어요. 또한 '외딴 방' 은 개발 독재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상징하나 암울했던 1970년대 상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 체험을 형상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글을 쓰는 외로운 한 영혼을 만나보세요. 글쓰기에 대해 질문하는 열려 있는 결말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올려놓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 영남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쓴 글

영남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집을 떠나 법당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부처님과 친구들과 지내며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아침공양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했어요. 아직 어린이인 법우님들이 하룻밤 엄마품을 떠나 잠을 자며 무슨 생각들을 했을지 어디 볼까요?

**<5학년 유정이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작은딸 유정이에요.
여기는 불교대학인데 불교대학에서 편지쓰기시간이 있어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인데 제가 더 잘 해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공부시키려 일하시는 것 보고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하려는 것 아세요?
요번 기말고사 때도 아버지가 힘드시게 일 하시는 것 보고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싸랑해요!!♡♡

**<5학년 수은이는> 어머니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 큰딸 수은이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알아요, 항상 힘드시다는 것.
불교대학에서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액자도 만들고, 별자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야광이 나지 않았어요.
퀴즈도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알아요~♡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두 분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영 · 원 · 히 ♡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황토 /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자연상태에서 건조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어혈푸는데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효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증9포 홍삼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토종 오가피엑기스 15만원 90ml 60포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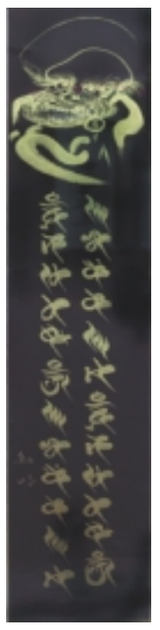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비방침술 특별공개

류마치스(봉독액 요법), 중풍 예방법, 중풍 치료법,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산질치료법

▶일시 : 9월 1일(오후 5시부터) ~ 9월 2일까지
▶보시금 일백오십만원, 봉독액 20회분 증정함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요실금, 구안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풍치, 아토피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무릎 관절통, 손, 발목관절통, 만성체증

비결 침술로 1회~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수 있습니다.

▶일시 : 9월 15일(오후 5시부터) ~ 9월 16일까지
▶보시금 일백만원(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040-56-087617 홍점순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016-552-2159